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3, Vol. 12, 85-110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일상 생활과 복지욕구: 목포 상동지역 빈곤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안 진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본 연구는 전남 목포시 상동지역 여성노인의 일상생활과 복지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여성노인들의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3개의 사례집단에 대한 집단면접방법을 통해 일상생활과 태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욕구조사에 대한 양적 통계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했다. 연구 결과, 빈곤여성노인들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는 다른 집단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빈곤여성들은 생활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노부모부양이나 세대의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그들의 일은 여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면서 일시적이고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고 사회와 만나는 통로로서 의미를 가졌다. 아울러 빈곤여성들의 복지욕구는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10 광주시 북구 분촌동 산 70번지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진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jean7475@hanmail.net입니다.

안 진

점심제공, 의료혜택, 극히 적은 수입이라도 생길 수 있는 일거리 등 기본적인 욕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기의 생존과 정체감에서 일이 차지하는 위치와 일의 의미는 계층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기해준다.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빈곤여성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복지정책의 수립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로당이 단순한 오락시설 이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Key words: 노후부양관, 복지욕구,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인, 일과 여가의 경계, 일상생활, 자아존중, 질적 방법]

머리말

최근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학적 연구들은 여성빈곤의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와 성차별에 주의를 기울였고, 대표적인 빈곤집단인 여성노인은 빈곤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노년기에 소득감소와 소득상실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과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남성노인들보다 빈곤에 더 취약한 상태에서 노년기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여성노인이 기본적인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은 국가복지의 사회보장에서도 배제된 결과이기도 하다 (석재은, 2001). 빈곤의 여성화 연구에 있어서 여성노인의 빈곤은 여성가구주의 연구와 다르지 않게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빈곤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 수급자 비율 중 여성노인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소득이 평균 10만원 미만인 빈곤노인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6.3%로 33.7%인 남성보다 현저히 높다 (석재은, 2001). 빈곤여성 노인층을 배우자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배우 여성노인 중 월소득 10만원 미만은 50.4%인데 비해 무배우 여성노인 중 월소득 10만원 미만은 72.2%나 된다. 이는 무배우 독거 여성노인이 여성빈곤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또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자녀로부터의 사적 보조나 일을 통한 직접 수입으로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여성노인은 빈곤에 취약하면서도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8년 정도 길며, 65세 이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상의 여성노인의 유병율(92.2 %)은 남성노인의 유병률(77.4%)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

빈곤층 여성노인들은 수발노동의 대상이어야 할 정도의 건강상태에서도 홀로 살아가든지 배우자하고만 살아가든지 또는 자녀와 함께 살아가든지 가사노동을 비롯하여 배우자 보호노동, 또 손자녀를 돌보는 양육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인이 수행하는 수발이나 양육 노동을 비롯하여 생계를 위한 생산노동까지도 노동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년사회학의 전통적인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 돌보기를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빈곤층 여성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성별(gender)이라는 변수를 적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여성노인들이 수행하는 양육이나 가사, 배우자 수발 노동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재생산 노동의 성격을 지닌다. 게다가 공적 소득보장이 미흡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 여성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강한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고, 농사나 가내 노동, 하청 등의 경제활동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일’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목포 상동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과 복지욕구의 분석을 통하여 ‘일’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빈곤여성노인을 위한 성인지적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복지정책들이 오히려 여성노인들에게 성차별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최근의 논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에 접근하였다.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Padgett (1998)의 질적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복지욕구에 대한 분석은 “상동지역주민 생활실태 및 기초욕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조사내용 중

안 진

노인복지에 관한 문항들을 위주로 했다. 이 연구가 질적 또는 양적 연구방법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던 이유는 빈곤층 여성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에는 심층면접이나 집단면접과 같은 질적 방법이 더 적합한 반면, 복지욕구조사에는 양적 방법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즉 최근 사회과학계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보다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재열, 1998).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집단면접과 복지실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질적 연구방법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양적 방법은 보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집단면접을 위한 사례집단은 모두 세 집단이었는데, 사례집단 1과 2는 여성노인 그리고 사례집단 3은 비교집단으로 남성노인들을 선정하였다. 세 사례집단에 대한 집단면접 이외에도 상동지역 사회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목포시 노인회관, 목포시 사회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실무자 그리고 상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련 종사자들과의 심층면접자료가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인 여성노인들은 상동 영구임대아파트 중 주공 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노인 3명과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공동작업장(대한노인회 노인취업알선센터 목포시 지부)에서 일하는 빈곤층 여성노인 3명으로 모두 6명이었다. 설문조사와 달리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면접자와 연구대상인 피면접자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유지했으며 (윤택림, 1994), 또 면접자는 연구대상과 동반자적 관계(Padgett, 1998, p. 121)이기 때문에 면접 방향을 제시나 흐름의 조절에 유의하였다. 또 자료수집을 하기 이전에 면접지침(interview guide)을 만들었고, 이는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사용해본 후 실제 면접에 적용되었다.

사례집단 2의 경우 처음에 포커스집단면접 대상으로 계획하고서 이 방법에 적절한 규모인 7명을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던 여성노인 7명으로 선정하였다. 포커스집단면접은 특히 조직에 관한 연구나 사회적 관계망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실천현장에서 전문성과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관련된 쟁점의 연구에 적합하며, 욕구조사나 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 또는 클라이언트나 직원들이 특정 정책이나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Padgett, 1998, pp. 129-130)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구성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바람직했으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배경을 가진데다 공동작업장과 노인회관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면접 중에 습관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작업장이라는 면접상황으로 인해 면접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사례집단 중 3명의 노인들만이 주로 구술을 주도했으므로 자료 분석에서는 이들만 포함시켰다.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된 집단면담자료들은 CD로 저장되고 면담자들의 서술내용 그대로 녹취자료로 정리·편집되어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위한 설문지는 포괄적인 질문은 아동이나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 그리고 지역에 관한 복지분야로 구성되었지만, 본고에서는 노인복지 분야 항목만을 분석·정리하였다. 설문조사의 자료분석방법은 단순빈도나 교차분석 등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양적 자료의 분석은 여성노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남성노인의 자료와 비교하여 성별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 욕구조사는 문제를 지닌 수혜자 욕구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즉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급자의 욕구, 공급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구성할 때 필요한 자원(문제해결 중심의 욕구조사)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혜자에 대한 욕구자료를 수집할 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수혜자의 욕구자료를 수집할 때 수렴성(convergence)이 매우 중요한데 (조홍식 외, 2000; Witkin & Altschuld, 1995), 이는 수혜자들이 때로는 문화적 영향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혜자 욕구 파악에서 세 가지 관점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세 가지란 수혜자 자신의 욕구, 서비스 제공자들이 바라보는 수혜자의 욕구,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수혜자의 욕구에 대

안 진

한 관점을 말한다. 욕구조사를 위한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의 수렴은 정보나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의 수렴 그리고 정보내용에 있어서의 수렴을 포함한다.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및 질적 조사(소그룹 토론, 대그룹 공청회 등)방법이 수렴되어야 한다. 정보내용에 있어서는 인적 차원에서 클라이언트,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지도자를 통한 정보수집이 수렴되어야 하며, 비인적 차원에 있어서는 기관에 관한 자료와 기존의 조사자료가 수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차 욕구조사 단계에서는 목포 상동지역에 대한 기존의 자료와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욕구조사는 수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방법을 사용했다. 욕구조사 설문지 조사기간은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로 조사원들이 상동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혜자의 욕구에 대한 공급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었으며, 대신 상동지역 복지관 실무자 2명, 상리복지관 실무자 1명과의 질적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상동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사 2명과 목포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자료를 보완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상동지역 영세민 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총 480가구이었으며, 그들 중 200가구를 표본추출하였다. 가정방문을 통하여 수집된 응답사례는 177가구에서 177명이었다. 응답사례 177가구 중에서 노인이 있는 가구는 총 78가구이었는 데, 노인부부가 있는 가구는 12, 여성노인만 있는 가구는 49, 남성노인만 있는 가구는 17가구로 여성노인만 있는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포 상동지역의 지역적 특성

전남 서부 도서 지역의 중심지인 목포시는 면적 46.12km², 2001년도 말의 인구가 245,492명(79, 378세대)인 중소도시이다. 행정구역은 총 26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상동지역은 목포시 버스터미널 뒤흘에 위치한 인구 밀집지역으로 거주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인구의 측면에 있어서는 원산동(20,445명, 6,277대), 신흥동(18,769명)을 제외하고는 거주인구수가 많은 지역이다. 목포시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도 말 15,658명으로 전체인구의 6.7%를 차지하지만,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목포시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260,633백만원 중 53,779백만원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예산이 2002년도 기준 정부 일반회계의 12.68%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목포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 지역의 주민 복지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 국비의 일반조세 예산에서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기인한 것이다. 즉 2001년도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5,519가구(12,269명)를 차지하며, 이는 총 가구수의 6.95%(목포시 인구수의 4.99%)를 차지한다. 목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전국통계인 3.3%보다 더 높은 편이지만, 전라남도 통계인 7.2%보다 더 낮은 편이다. 이는 농촌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인 목포지역의 수급자가 적음을 뜻한다.

2003년도 1/4분기 목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5,410가구의 11,111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과 연령의 분포를 보면, 일반수급자 총 4,852세대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58.6%(2,843명)로 남성가구주 비율 41.4%(2,009명)보다 더 높은 편이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총 가구주 558세대 중 남성가구주 비율(52.5%, 293명)이 여성가구주 비율(47.5%, 265명)보다 약간 더 높은 편이다. 연령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주의 36.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표 1> 참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비율(74.5%, 1,490세대)이 남성가구주의 비율(24.6%, 485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다. 이들을 가구원 통계로 살펴보다도 남성가구원 비율(21.7%, 503명)에 비해 여성가구원 비율(78.3%, 1,815명)이 더 높다. 한국사회의 노인인구의 남녀비가 60:100임을 고려할 때 목포시 여성노인이 공공부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안 진

<표 1> 목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인구

연령 인원		65-69세	70-79세	80세 ↑	n (%)
가구주	남	195	207	83	485 (24.6%)
	녀	378	749	363	1,490 (75.4%)
	합계	573	956	446	1,975 (100.0%)
전가구원	남	202	216	85	503 (21.7%)
	녀	494	901	420	1,815 (78.3%)
	합계	696	1,117	505	2,318 (100.0%)

목포지역의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비슷한 인구규모의 다른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해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이 많은 편이다. 2003년 현재 아동생활시설은 6개이며, 노인복지시설도 생활시설인 1개 양로원과 1개 요양원을 제외하고도 이용시설이 무려 5개에 이른다. 후자의 5개 이용시설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운영), 새로 신축된 시 노인복지관, 행복노인복지관 (개신교 수녀회에서 운영), 성모 재가노인복지관(카톨릭단체 운영), 및 노인복지관(목포과학대학 운영)이다. 그 밖에도 시내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이 2003년 봄 현재 97개(각동에 3-4개씩)에 이른다.

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이다. 공공복지의 주체인 목포시와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 다양한 자원봉사조직들이 연계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정에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핵심 내용은 경로식당 운영 (혹은 도시락 배달), 가정봉사원 파견, 독거노인과의 결연사업 등이다. 경로당은 본론의 집단면담 자료분석에 나타나 있듯이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만남의 장소나 여가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다.

상동지역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현대아파트 단지와 주공아파트 단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지(1-4)로 구성되어 있다. 주공아파트 단지 중 2단지와 4단지는 좁은 평수이지만 분양아파트로 중·하층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부조 수급자는 별로 없다. 이에 비해 주공아파트 1단지와 3단지는 목포시내 영세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되어 목포 시내에 거주하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입주신청자격이 주어진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모두 1,554세대(1단지 480세대, 3단지 1074세대)다. 그들 중에서 수급자의 비율은 거의 $\frac{1}{3}$ (1단지 480세대 중 160세대로 고령자들이 많고, 3단지 경우 1,070세대 중 300여 세대로 장애인들이 많다)에 해당된다.

상동지역은 저소득층 주거단지로 수급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동사무소에는 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며 (다른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1-2명인 반면, 이곳은 5명임),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 구역에는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이 두 곳이나 된다 (목포시 전체 지역복지관 3곳 중 2곳이 상동지역에 위치). 공공복지에 종사하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의 노인 수급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급여액수와 서비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오기보다는 수급자 중 요보호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민간 복지관을 자주 찾아가는 편이다.

상동지역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다른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취미프로그램들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또 그 수익을 지역사회 내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사용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상동지역의 복지관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상동지역에 거주하는 비수급자들과 저소득층 수급자들 사이에 사회적 경계가 존재하여 비수급자들이 이 지역의 복지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동지역 내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의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목포시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외출노인 간이급식소 운영, 노인정, 물리치료실, 목욕탕 등을 운영하여 빈곤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적 프

안 진

로그래밍의 운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지역내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적합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비해 목포 시내 전역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이나 사회근로복지관은 목포 지역사회 내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복지관 재가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대는 149세대로 밀반찬 배달과 생활환경 둘러보기, 주 1회 전화로 안부 묻기, 일상생활동작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목욕 봉사 서비스, 청소년 자원봉사팀의 말벗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맹인 여성노인 수급자들이 많은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4개월 인증과정으로 한글을 가르치는데, 하계와 동계 방학 2회에 걸쳐 각각 50명 정도 배출한다. 거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노인들은 남녀가 짝을 맞추어서 하는 스포츠 댄스 프로그램을 즐긴다.

연구결과

목포 상동지역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복지욕구와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밝혔듯이 설문지조사와 집단면접을 병행하였다. 상동지역은 도시빈민밀집지역의 하나로 오랫동안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이 지역 안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실시한 욕구조사 말고는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다. 욕구조사는 거주주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종류와 정도 및 욕구의 우선순위까지 포괄해야 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생활상의 어려움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정도를 분석하고 욕구의 정도와 핵심욕구는 집단면담을 통해 접근하였다.

주민 욕구조사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정방문을 통하여 수집한 총 사례는 177가구이었고, 응답자의 비율은 여성(70.7%)이 남성(29.3%)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응답자의 결혼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여부는 미혼 19.1%, 기혼 42.8%, 이혼 및 사별이 35.8%이었다. 또 그들의 세대별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이 20.5% 그리고 조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정도 4.7%에 해당되었다. 응답자들의 가족구성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학이전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5%에 불과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17.3%,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22.5%, 성인여성이 있는 경우 26.7%, 장애인이 있는 경우 19.1%, 그리고 노인이 있는 경우 45.7%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일반 주거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노인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여성노인이 있는 가구가 49세대, 남성노인이 있는 가구는 17세대 그리고 노인부부가 있는 가구는 12세대이었다 (무응답자 1명 제외되었음).

전체 응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8.6% (154명 중 106명)이었는데, 응답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보호 1종인 경우가 3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보호 2종인 경우가 28.8%, 의료보호를 받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8%이었다. 국가유공자(원호 대상자)는 3.8%이었으며, 그들 중 공공부조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7.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없다는 반응도 18.1%, 있어도 30만원 미만이라는 반응이 30.3%, 30-50만원 정도가 26.9%, 50-100만원 정도가 22.5%, 그리고 100-150만원 정도가 2.5%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가구의 4정도가 50만원 미만이 빈곤층임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의 경우 50만원 이하가 89.5% 그리고 50-100만원이 10.5%에 불과한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이하가 43.5% 그리고 50-100만원이 50.5%로 나타났다.

지출규모에서도 궁핍한 생활수준이 드러났는데, 월평균 지출액이 1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7.7%, 10-50만원이라는 응답이 72.4%, 50-100만원이라는 응답이 18.6%로 지출액이 매월 50만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80%를 넘었다. 지출항목의 내용으로는 주거관리비가 5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식·생활비 24.7%, 의료비 10.5%, 교육비 9.9%, 부채이자 2.5%, 문화비 0.6%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

안 진

급여부에 따라 지출항목을 보면,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들보다 주거와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다. 특히 주거비의 부담은 여성노인들과의 집단면담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실제 월 3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7-8만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난방이나 수도, 전기 요금 포함)였다. 그들은 매월 생활비를 비축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일이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토로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과 주요욕구: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과 및 일에 대한 욕구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과 핵심욕구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모두 3개의 사례집단을 선정하여 집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욕구조사의 내용에서 노인복지욕구 관련 문항만을 분석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면접의 주요 주제는 일상생활(하루일과 및 주 소득원), 생애, 일의 의미, 가족관계, 생활만족도, 노후부양이나 젊은 세대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례집단 1과 2는 모두 빈곤층 독거 여성노인들로 상동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시내 빈곤주택가에서 사글세나 전세로 살고 있었다.

대부분이 공공부조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일과는 오전에 복지관 노인정에 나오거나 노인회관 작업장에 나와 시간을 보내다가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내거나 보건소나 병원을 가는 것이었다. 그밖에 외출은 일주일에 1-2회 교회나 성당에 참석하고 연중행사로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나들이나 관광, 생일잔치 참석 등이 전부였다. 자녀들을 방문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여성 독거노인들은 모두 복지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자주 표했는데, 그 이유는 ‘내자식도 못하는 고마운’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 이들은 외부방문객들이 올 경우 직접적인 혜택의 제공여부에 대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3개의 사례집단의 인터뷰 대상은 총 9명으로 인적 사항은 <표 2>부터 <표 4>까지와 같다.

사례집단 1의 여성노인들은 모두 배우자와 사별 후 영구임대아파트에 독거하는 노인들로 특별한 소득활동은 없지만, 복지관에서 노인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표 2> 사례집단 1의 인적사항

집단1	연령	학력	월소득	공공부조	배우자	가구형태	비동거자녀수
1	80	초졸	30만원↓	수급자	사별	독거	1남
2	75	초졸	30만원↓	수급자	사별	독거	1남 1녀
3	71	무학	30만원↓	수급자	사별	독거	1녀

참고: 사례집단 1에 해당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노인임
공공부조 수급여부 항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의료
보호 1종 수혜자임

<표 3> 사례집단 2의 인적사항

집단2	연령	학력	월소득	공공부조	배우자	가구형태	비동거자녀수
4	79	무학	30만원↓	비수급자	사별	독거	1남 5녀
5	79	무학	30만원↓	수급자	사별	독거	2남
6	80	무학	30만원↓	수급자	사별	독거	1남 2녀

참고: 사례집단 2에 해당되는 자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인임

<표 4> 사례집단 3의 인적사항

집단3	연령	학력	월소득	공공부조	배우자	가구형태	비동거자녀수
7	65	초졸	30-50만원	조건부	사별	독거	2남
8	84	고졸	30-50만원	비수급자	생존	부부동거	3남 2녀
9	70	무학	30-50만원	비수급자	생존	부부동거	3남 4녀

참고: 사례집단 3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비취업 남성노인임

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만드는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다. 노인1(80세, 초졸, 1남)은 일찍 사별하고 아파트 건립 후 곧바로 입주하여 임대아파트에 12년째 거주해왔으며 성당의 종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노인 2(75세, 초졸, 1남 1녀)는 정신대 모집을 피해 만주로 피신하여 교통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결혼했으나, 현재는 혼자 계셨

안 진

다. 이들의 일과는 아침 일찍 복지관에 나와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을 제공받은 후 보건소나 병원을 다니는 것이 전부였다. 집이 비좁은 탓으로 집에 모여 노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복지관 노인정에서는 화투(10원짜리 내기 삼봉)를 치거나 잡담하며 보낸다. 특별한 즐거움은 복지관에서 년 2회 정도 주관하는 관광여행에 다녀오는 것이었다.

사례집단 2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인들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도 있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어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빈곤노인이 대부분이었다. 사례집단 1과 2의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사별 후 독거상태인데, 사례집단 1은 상동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데 비하여 사례집단 2는 사글세나 전세로 생활하면서 공동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례집단 2는 모두 80세 전후의 고령층으로 무학, 문맹이었고,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주거비나 몸이 아플 때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다. 고령이라서 별다른 여가활동은 없었지만, 그들의 여가생활에서 종교활동은 특별한 큰 의미를 가졌다. 즉 공동작업장에서 받는 3만원의 월급 중 일부를 교회나 성당에 헌금하는데 사용한다고 했다. 하루 일과는 오전에 공동작업장에서 모여 스레트 못을 조립하는 단순 노동을 한 후 점심을 먹고 나면 보건소나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사회적 교류는 공동작업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전부이며 나머지의 시간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잠자며 지냈다.

사례집단 3은 비취업 남성노인들로 여성노인과 비교를 위하여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노인7(65세 남)은 농업노동과 제조업, 정미소일을 한 노동경력이 있고, 조사당일 상동 동네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노동이 본인의 유일한 소득원이며, 조건부 수급자로 받아가는 생계비 보조가 소득의 전부였다. 노인8(84세 남)은 과거에는 농사일과 노인단체 대표자로 활동했다. 주소득원은 자녀들이 보내주는 생계비 보조이며, 정부보조금이나 사회보험은 없다.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춘추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관광여행이나 복지관 행사점심제공 외에 다른 여가생활을 할 비용이 없다. 매일 80명 정도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있는 노인정 나들이가 일과이며 자녀방문은 특별한 행사이다. 노인9(70세 남)는 과거에 농업노동과 정미소일, 제조업 분야에서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일했으나 52세에 산재(시각장애)로 실직한 사례였다. 12년 전 상동 영세민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시각장애 상태에서도 재취업 욕구가 강하여 아파트경비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젊은 층의 서비스 욕구를 맞추기 어려워 그만두었다. 자녀는 3남 4녀 중 1남 1녀(미혼)이며 주 소득원은 자녀들이 각각 보내주는 부양비와 취업 중인 며느리의 손자양육비를 합하여 월 55만원 정도이었다.

세 사람 모두 매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또 저녁식사는 각자 집에서 해결한다. 대부분의 일과를 복지관 1층의 노인정에서 보내며, 가끔 나들이를 한다. 세 명 모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특별한 여가활동이 없으며, 복지관에서의 점심식사를 “식탁에서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과거에 모두 취업교육에 참여해본 적은 있으나 이제는 나이 때문에 포기한 상태였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곤란을 느끼는 부분은 아파트 임대료와 주거잡비(관리비, 전기나 가스 비용)의 부담이었다.

세 개의 사례집단 노인들 모두에게 복지관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이다. 노인회관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에 나오는 노인들에게 ‘일’은 또래의 노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장년층에게 직장이 갖는 비중만큼 하루일과의 중심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의 핵심이었다.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80세의 여성노인의 구술하는 복지관의 생활과 일의 의미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노인대학교를 땡길 때는…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늙어서 머리가 흐게지고 한께 인자는 못오게 합디다. 그란께 인자 우리가 놀러는 안맹기 제라우. 그랑께 복지관같이 좋은 데가 없어. 여가 쯤 좋아라우. 우리는 여그 안맹기면 못살아라우.”

“여그와야 재밋제라우. 우리는 집에만 있으면 텔레비하고 동무를 하고 살제. 옛날에 놀러 땡길 때가 재밋었는데 지금은 다 늙어 가꼬 누가 우리를 놀러보내 주겠소? 노인 대학도…70살 때는 들어갔는데 80된게 못들어 오게 해. 나이들든 못오게 해.”

안 진

이들은 농사일을 하다가 도시로 나온 후에는 비정규직의 다양한 잡역을 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일들은 자아실현의 의미가 있다가보다는 먹고살기 위해서였고,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노년의 신체적 조건에도 맞고 젊은 층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단순한 일을 원한다.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례집단 2의 두 여성노인의 구술내용은 이를 잘 말해준다.

“남들이 안한 일 많이 했제라우... 그란디 인자 늙어논께 암것도 못하고 요것이라도 하고 그라제.”

“별 것을 다 해먹었제라우. 근디 늙은께 암것도 못한 게 들어앉아가꼬 이런 것 하제라우.”

아래의 구술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례집단 1의 여성노인들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싶죠. 가만히 놀면 뭐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못벌어 먹고 산디 늙은이들이 ... 힘도 없는 사람이 고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न्छ.”

이들 여성노인은 대부분 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등 건강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보건소나 병원 방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일과에 속할 정도였다. 또래 노인들 사이에서 의료보호를 받는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생계를 위한 생산노동이든 재생산 노동이든 여성노인들에 비해 남성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를 이유로 일을 쉽게 포기한데 비해, 여성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의존성도 남성보다 더 낮다. 아래의 구술에 나타나 있듯이 부양·수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남성노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남성노인들을 훨씬 더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노인 스스로 생존을 해결하거나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노인들의 수발욕구는 남성노인에 비해 약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항상 남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수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노동을 계속해야할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노인들의 빈곤과 독립성향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남성노인들에 비해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원인일 것이다.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들이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더 못이기고, 더 소외를 받거든요. 남자들에 비교하자면 여자들이 더 강한다. 왜 그라냐면 할머니들은 하다 못해 누 집에 가서 이작저작 쓸어줄 수도 있고 어린것들 코 한번 닦아 줄 수도 있어요. 상대하는 면이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어른들(할아버지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만 사니까 더 멀어지니까 가까워지지 않고 할아버지들은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소외를 받게.”

이에 비해 아래의 구술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남성 노인들은 노동을 회피하거나 재취업에 대해 소극적이다.

“우리는 해봐도 안 한만 못하죠.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컴퓨터 교실도 해봤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서 포기했습니다. 우리친구 다섯이서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둔해져서....손자녀석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도....12평정도 되는 좁은 집이라 뭘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싫어 하거든요. 내 입장도 그런 입장이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빈곤층 노인들이 겪는 주된 곤란이 질병과 경제적 결핍이라는 점은 욕구조사 내용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의 응답결과의 분석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노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표 4>에 나타난 바처럼 건강문제가 57.9%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궁핍도 27.6% 나타났다. 이는 목포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의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에서도 증명된다. 실무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복지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노인프로그램은 무엇이든 효과가 크고 성공적인데 특히 건강프로그램은 효과가 가장 크다.

상동지역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핵심욕구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할 가장 필요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 두 가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표

안 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목욕 식사 등 일상적 수발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4> 노인의 생활상의 어려움

생활상의 고통	거동 불편	권위 상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일상 생활 어려움	사회적 박탈 및 무력감	기타	합계
사례수	7	1	44	21	1	1	1	76
%	9.2	1.3	57.9	27.6	1.3	1.3	1.3	100.0

참고: 분석에서 노인 없는 가구 91(54.2%)는 제외

<표 5>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1

노인을 위한 프로 그램1	노인사회 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 노인 결연	식사 및 목욕	건강 진단 및 치료	가정 봉사원 파견	노인 주간 보호	체력 단련실	없다	합계
사례수	2	7	25	16	3	1	1	21	76
%	2.6	9.2	32.9	21.1	3.9	1.3	1.3	27.6	100.0

<표 6>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2

노인을 위한 프로 그램2	식사 및 목욕	건강진 단 및 치료	가정 봉사원 파견	휴게실 공간 마련	노인 사회 봉사 활동	노인 주간 보호	없다	기타	합계
사례수	3	22	4	6	1	1	17	1	55
%	5.5	40	7.3	10.9	1.8	1.8	30.9	1.8	100.0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빈곤 여성노인들의 여가생활: 일과 여가의 불분명한 경계

여성노인의 여가생활은 두 집단의 여성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집단면담을 했던 두 집단 중 한 집단은 상동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3명의 여성노인들이고, 다른 집단은 노인회관에 있는 공동작업장(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취업센터 목포시지회)에서 일하는 7명의 여성노인들이다. 공동작업장의 일거리는 중소기업체에서 하청을 준 스레트 못 조립작업을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주선해준 것이다.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인들은 오전에 출근하여 점심을 제공받기까지 하루 4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월 1회 3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노인취업센터 실무자에 의하면, 공동작업장의 일이나 취로사업의 경우 남성노인들보다는 여성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 이는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에 비해 저축해둔 재산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성노인은 수발이나 부양대상자로 보는데 비해 여성노인들은 성 역할 분담에 의해 오히려 수발이나 보호노동을 제공해야할 주체로 보거나, 또 자신의 노동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고 보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고정관념의 영향 때문이다. 노인취업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빈곤여성노인을 위해 용역회사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기도 한다.

여성노인들이 하는 일은 대개 부정기적인 일거리들이다. ‘농촌 일손 돕기’라는 이름으로 하는 농업노동은 농번기에 마늘이나 양파 수확, 과수원 일, 마늘 까기 등이며, 도시에서 하는 일로는 인형 등 완구 제품 바느질, 음식점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저 포장 등 단순노동이다.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과거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경력으로 인해 농업노동을 선호하고 남성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단순노동(용역회사에서 알선해주는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을 선호한다. 집단 면접한 여성노인들은 부정기적이지만 일할 기회를 갖고 조금이라도 수입을 가지려는 욕구가 강하다. 여가생활 중 나들이나 외출이 거의 없는 최고령 극빈 여성노인들에게도 노인회관에서 제공해주

안 진

<표 7> 노인의 여가장소 [n (%)]

	집	경로당	직장	기타	합계
여성노인	33 (52.4)	21 (33.3)	1 (1.6)	8 (12.7)	63 (100)
남성노인	13 (46.4)	11 (39.3)	1 (3.6)	3 (9.8)	28 (100)

참고: 여가장소는 낮시간에 주로 생활하는 곳을 의미하며,
분석에서 여성노인이 없는 107가구(62.9%)는 및
남성노인이 없는 가구 142(83.5%)는 제외하였음.

는 밥과 공동작업장의 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표 7>에 나타난 바처럼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있어서는 여성노인들이 집에 있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여가시간을 주로 집과 경로당에서 보내는 데에 성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여가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빈번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정에서 또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대답이었다.

빈곤여성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태도: 노후부양관, 세대의식

빈곤여성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만족도 없고 불만도 없이 ‘그냥 사는’ 정도이다. 빈곤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생계비 보장, 의료서비스, 여가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공적 복지의 확대와 민간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구술표현을 빌리자면, ‘만족도 불만족도 없는’ 무감각한 생활이다. 빈곤여성노인들은 가족관계에서 받는 사적 지원(물질적 부양비나 정서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주변의 노인들의 질병이나 사망에 의해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 아래에 세 여성노인들의 구술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은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쓸모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남성노인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다.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나는 뭘 만족도 없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아무것도 없이 사요.”

“여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날짜를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제.”

“건강하게 이런 거라도 땡기다가 갑자기 가버리는 게 소원이고...”

노후부양관이나 젊은 세대를 보는 시선 또한 매우 순응적이고 관용적이다. 모두 노부모 부양을 당연시하였던 자신들의 과거시절을 동경하며, 젊은 세대의 태도와 사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추세를 수용한다. 부모부양을 주장하는 노인은 면담자 중에 아무도 없었다.

“어른들 말을 어기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항상 순종하고 네네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이었제.”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그걸 모르고 살면 되는데....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이라는 것이 없고, 자식도 부모를 몰라보지만....자식 탓을 하고 살 것은 못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자기 머리 써서....노력하면서....될 수 있으면 옆에 사람 불편하게 안하고, 요새 노인네들은...될 수 있으면 자식들한테 괴로움을 안주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라고...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맞춰 살라고 노력을 해요.”

“어서 죽어야 하는 디. (하하하하) 너무 노인들이 많아요.”

“세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자식한테 원망만 가지면은 안되요....요새 젊은 사람들이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아요....런 세대에서 옛날 식으로 그렇게 우리들 살았던 식으로 살면 안되제....밥만 안 굶기는 것만 해도 효자라고 생각하고.”

노후부양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아래의 남성노인의 구술에 나타나 있듯이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모를 가족에서 자녀들이 부양했던 자신들의 세대에 대한 향수와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체념의 태도가 노년세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자랐을 때와 시대가 다르니까,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세상인데도 우리가 살기는 불편하다. 옛날로 돌

아가서 옛날이 좋았다하고 말하죠. 90살 먹은 노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맺음말: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복지관 기능

본론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노인여성의 일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기대수명의 남녀차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감안하더라도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에 대한 욕구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갖지 못하는 노인여성의 노동은 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게다가 여성노인들은 수발의 대상자인데도 오히려 수발노동의 주담당자나 양육노동을 해야 할 존재로 여성으로 간주된다. 노년기 여성은 성성인 면에서도 탈성화(desexualization)된 존재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노동의 면에 있어서도 탈연령화된 존재(deaged being)로 간주된다. 이러한 측면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론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 노인여성의 일과 여가의 경계의 모호성도 이론적인 논의의 과제이다. 노년기 일의 의미와 취업욕구는 계층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성에 따라 다르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층 여성노인들의 일상생활은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관 노인정이나 노인회관 공동작업장, 동네의 노인정 등에 점심을 제공받거나 노인대학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하루를 보낸다. 특별한 여가활동은 1년에 2-3회 정도인 복지관 나들이, 복지관 여행 등으로 이는 여성노인에게나 남성노인에게나 빈곤층 노인들의 여가욕구의 충족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교회나 성당 등 지역사회 내 종교시설은 빈곤여성노인들에게는 남성들과 달리 중요성을 갖는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당연시되는 경직성은 종교활동의 면에서는 성별 차이를 뚜렷이 드러낸다. 유교적 관습을 비롯하여 정통적인 무속과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빈곤층 노인들에게 서구 종교는 신앙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사회적 소외를 채워주는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기능을 한다.

빈곤여성노인의 일상생활 및 복지욕구

본론의 분석에 나타나 있듯이 빈곤여성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공간은 생활근거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이다. 노인정은 노인회관과 함께 노인복지법상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최성재·장인협, 2003, p. 753). 현재 전국 도시의 동마다 2-3개씩 있는 노인정은 지역사회 내의 자생적 노인단체로서 중간층 내지 하층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공간이다. 전국노인의 4정도가 이용하는 노인정은 집 밖에서 조직적인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거의 없고 농촌출신들이 대부분인 빈곤층 여성노인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사회활동의 장이며 사회에 통합되는 통로이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지역사회복지관 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지역사회 내의 노인정이 단순한 여가오락시설로 머무르지 않고 재가복지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일감제공이나 일자리 안내 등 경제적 기능과 지역사회 봉사 등 빈곤여성노인들을 지역사회 내에 통합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빈곤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기초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부조와 함께 노인에게 적절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물질적인 부양 못지 않게 사회와 교류할 수 있고 노인들을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심리적 부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석재은 (2001).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양성평등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미간행).
- 윤택립 (1994).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
- 이재열 (1998).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방법: 양적 방법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한국외류학회 패션마케팅연구회 세미나 발표문.

안 진

- 조흥식 외 (2000). **난곡지역 주민 욕구조사**. 서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한림대학교 운영).
- 최성재 · 장인협 (2003).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adgett, Deborah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참조: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Witkin B., & Altschuld, J. (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 A practical guide**. London: Sage.

**Daily Life and Needs of the Poor Elderly Women:
Focused on Sangdong Area in Mokpo City**

Jean Ah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shin University
Kwangju, Korea, 500-710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work among the poor elderly women through the analyses of their daily life and welfare needs. Daily life and their attitudes were investigated by the narrative data from three interview groups. Welfare needs were analyzed by need assessment research.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 meaning of work among the poor elderly women would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elderly men or the upper/middle class elderly people. Their boundary of work and leisure was very ambiguous in their daily routine. In addition, their daily life was constructed around the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or senior house (Gyungro-dang). Self-esteem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very low. Their attitudes on children's support for parent has really been changed. They are very generous and submissive to the young generation. Their primary welfare needs are still very basic, like lunch service, health care, and trivial work for the tiny income.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finding for the welfare program and welfare policy is that the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or senior house can be utilized and activized not just as leisure space but as a kind of workplace for the poor elderly women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안 진

in their daily life. This paper also rais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meaning of work among the poor elderly women.

(논문접수일: 2003년 10월 2일)

(수정논문접수일: 2003년 11월 4일)

(논문게재승인일: 2003년 11월 11일)